

그곳의 피부, 호흡, 온도, 그리고 감정

김성우 (독립큐레이터)

여기 어느 공간이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리고 그 공간에 상상의 차원에서 여러 치장을 더해보자. 이를테면 이제는 익숙한 유형의 노출 콘크리트 구조일 수도 있으며, 북유럽풍의 디자인이 더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틀이 잡힌 공간에 이곳과 어울릴만한 (또는 불협화음을 이룰만한) 모종의 오브제를 또 덧대어 보자. 완벽하게 통제하고 제한하여 통일된 톤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며, 반대로 굉장히 이질적인 분위기를 선사할 수도 있겠다. 우리는 의도에 따라 공간을 꾸미고 그것에 어떤 용도를 부여한다. 그것은 카페일 수도 있고, 사무실이나 스튜디오가 될 수도 있다. 문자로 '공간'이라고 명명하는 이곳은 사용자의 문제에 따라 어떤 가치를 지니게 된다. 또한 이곳은 어떤 맥락에서 어떤 경로로 접근하는지에 따라 다시 다른 성격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를테면 끊임없는 도시 개발 속에서 효용의 맥락으로부터 뒤쳐진 공간은 유희공간으로 남겨지기도 하며, 지난 역사의 특별한 사건과 결부된 곳은 기념적 차원에서 사적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공간을 배경으로 자신의 내밀한 추억을 떠올리기도 한다. 결국 공간은 개인의 시간, 그리고 그때 그곳에서 관계하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특별한 시간과 순간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쓸모나 쓰임, 가치나 의미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하며 규정된 공간은 그렇게 특별한 장소가 된다. 공간은 그곳을 구성하는 개별의 요소로서 인상이 결정되고, 그 인상은 용도와 쓰임을 떠받치며 거기에 독특한 성격을 담보하며, 여기에 사용자의 시간이 덧입혀지고 그 궤적 안에서 내밀한 온도를 갖게 된다.

박지혜의 작업 <그곳에 아무도 없다>는 어떤 공간을 배경으로 전개된다. 도시 개발 정책에서 밀려난, 한국의 현대사와 함께 도시의 성장과 쇠퇴, 욕망과 좌절을 증언하는 듯한 비주열을 간직한 이곳은 상실과 그리움, 불안의 정서를 갖고 있다. 사람의 손길이 끊긴 후 정돈되지 않은 산만하고 어지러운 풍경, 공간의 생동감을 대변하는 빛과 소리보다는 가동이 멈춘 뒤 남은 적막감이 이곳의 첫인상이다. 하지만 박지혜의 '그곳'은 흔히 동시대 미술에서 공간이나 장소를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 요인과 결부시키는 방식에서 빗겨나 있다. 오히려 그녀는 숨이 다한듯한 공간을 다시금 생동하는 모종의 시공으로 재편성한다.

우선 공간과 연루된 외재적 이슈로부터 한 발짝 떨어진 그녀의 시선은 냉정하리만치 그곳이 간직한 거친 인테리어를 그대로 인정하고 시작한다. 이를테면 물리적으로 방치된 상태, 그 시각적 요소들을 하나의 무대를 위한 장치로 상정하는 식이다. 영상의 초입 수풀로 뒤덮인 철조망 입구로부터 진입하게 되는 이곳은 현실, 혹은 욕망으로부터 동떨어져 마주하는 공허함의 시공을 암시함과 동시에 모종의 차원으로 관객을 인도하는 듯하다. 그리고 곧 마주하게 되는 내부의 표피적 질감들, 그러니까 켜켜이 쌓인 먼지가 만들어내는 둔탁한 벽과 바닥의 색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널브러진 책상 위 기물이나 낡은 표면의 상태는 더욱 극적인 인상을 만들어낸다. 또한 이러한 질감은 영상의 시작에 등장하는 인물의 얼굴 위 미세한 주름이나 손의 움직임 위로 드러나는 가녀린 떨림, 그가 앉아있는 오래된 벤치의 질감과 연동되며 해당 공간의 현재 상태를 촉각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시각적 차원에서 배경이 뿜어내는 불안한 정서는 영상의 전반을 관통하는 색감, 즉 초록빛을 통해

새로운 떨림으로 생동하기 시작한다. 수명이 다한 듯한 것에 어울릴법하지 않은 이 초록색에 대한 보편적 관념은 새로운 생명의 태동이나 생명력으로 넘쳐나는 어떤 순간에 가까울 것이다. 영상의 초입에서 자연으로부터 시작한 푸릇푸릇한 초록색은 곧 먼지 낀 창문으로 보이는 찬란한 햇빛을 머금은 나뭇잎이나 계단을 타고 오르는 덩굴로 이어지거나, 오래되어 많이 탈락했지만 그래도 드문드문 푸른 페인트 색을 유지한 파이프의 표면이나 오래된 책걸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색의 이동은 공간에 물리적으로 주어진 처음의 인상과는 조금 다른 온도를 부여하며, 이곳이 처한 현실로 귀결하기보다는 그로부터 시작하여 다른 감각으로 향하게 한다.

버려진 공간의 첫인상을 거스르는 색감으로의 전이는 등장인물들의 행동, 몸짓과 다시 맞물리게 된다. 영상에는 크게 세 부분에 걸쳐 인물이 등장하는데 처음의 여성은 공간을 부유하는 젊은 남성의 뒷모습으로 이어지고, 작품의 중반부터 등장하는 춤을 추는 남녀로 연결된다. 초반의 여성이 눈가의 잔주름이나 우수에 젖은 눈빛, 그리고 기력이 쇠한 듯한 행동으로 신체의 나이를 경유하여 지난 시간의 곡절을 환기한다면, 이후 등장하는 젊은 남성은 공간을 차마 떠나지 못하고 배회하는 듯한 모습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다시 도래할 어떤 앞날을 암시하는 듯하다. 여기에 더해 왈츠를 추는 남녀의 등장은 과거의 영광과 숨죽여 버터내는 현재, 그리고 끊임없이 긍정할 수밖에 없는 미래로 인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요소와 감각을 특정한 호흡으로 묶어내는 것은 사운드이다. 마치 껍데기만 남은 듯한 공간의 스산함을 비집고 들어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이 비가시적 차원의 것은 영상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모든 가시적 요소가 무력하게 폐허의 감각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다시 살아나기 직전 생동하는 순간으로 안내한다. 어질러진 책상을 감도는 불안, 먼지 낀 창문,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공간의 적막감은 공기가 파이프를 타고 흐르는 소리, 나뭇잎을 스치는 바람 소리, 햇살에 반사하며 리드미컬하게 흐르는 물소리, 그리고 망치를 두드리는 외부의 소리나 사람의 발소리와 교차하며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고 뒤섞인다. 그리고 공간의 스펙터클한 시각적 요소를 초월하여 그 여백, 마치 혈관을 타고 흘러 들어가는 뜨거운 핏줄기처럼 단절과 굴절된 시공에서 조화로운 리듬과 호흡을 만들어낸다.

그곳에 아무도 없다, 그리고 없었다. 박지혜가 그려내는 공간은 '없다'라는 현재로부터 시작하여 '없었다'라는 과거로 흘러가는, 과거와 현재의 간극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여백의 시공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비움과 채움의 역설이 만들어내는 순간의 연속이다. 작가가 주목하는 것은 공간의 시각적 인테리어가 주는 형식적 매혹이 아니다. 그녀는 현재의 공간 내외부를 이동하며 과거를 상기하고 미래를 떠올리며, 시각 너머 감각의 총체가 만들어내는 부재와 충만, 불편함과 친밀함의 전이 그 자체를 마주한다. 그렇기에 박지혜가 그려낸 공간에서 처음 마주하는 정서는 어떤 상실과 만족이 양립하는 혼돈의 상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곳은 과거의 무엇을 닮아있고, 앞으로 도래할 무언가를 기다리는 감정으로 충만하다.